불교 영미권 현지화… 美 출신 불교도 증가

서구문화 융화 불교 인기↑
북미 포교사 70% 현지출신
"불교 가르침은 모두 동일,
사람들 자비 · 관용에 이끌려"

박영빈 객원기자


온라인으로 법회를 진행하는 헨리 아담스 스님. 사진출처=교도통신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전해오던 불교가 점차 영미권 현지사회와 동화되고 있다. 최근 불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미국 출신의 포교사와 출가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말하는 영미권이 바라보는 불교의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일본의 '교도통신(共同通信)'은 미국사회 속에 융화되고 있는 불교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에 가까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산마테오의 정토진종 본원사파의 사찰 '산마테오 불교회'는 110년에 걸쳐 현지에서 불교를 전해왔다. 매주 일요일 아침 봉행되는 법회에는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에 약 30여 명이 모인다. 법당의 내부는 전통 사찰보다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예불 때 오르간이 사용되는 등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법회가 진행된다.

산마테오 불교회의 주지 헨리 아담스 스님은 "나라가 바뀌어도 불교의 가르침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아담스 스님은 혼간지파가 일본에서 세계로 파견하는 포교사 스님인 '개교사(開教使)' 중 한 명이다. 평범한 백인 기독교 가정 출신 아담스 스님은 1995년, 교환 유학생으로 1년간 체재한 인도에서 구걸하는 빈민층이 가득한 거리를 목격하고 빈곤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스님은 "그때 사람의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알고 불교에 흥미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후 대학원 등에서 불교를 더욱 깊게 배우고 일본에서 수년간 국제교류원으로 일했다.

스님은 "아미타부처님의 본원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는 정토진종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불교로 개종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이후 외국인이라도 개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교토의 본산에서 수년간의 공부 끝에 2008년에 출가, 이후 2013년 산마테오 불교회의 첫 백인 개교사로 취임했다.

정토진종 본원사파 측은 "현재 북미지구 개교사의 70%가 미국 출신"이라며 "이전에는 주로 일본인이 개교사를 맡았지만 점차 미국출신의 개교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불교신자들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불교도가 다수였던 이민자 가정 1~2세대 이후 젊은 세대들은 미국사회에 스며들어 불교와 친근감을 느끼는 세대의 비율이 떨어졌다. 반대로 기독교 등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담스 스님은 "미국인들에게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사회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미지는 관용과 자비의 모습인 것이다.

불교로 개종한 한 미국인 여성은 성소수자로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교회에서 동성파트너와 이별할 것을 수차례 강요받아 개종해 불교도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교토에서 출가한 유대교 출신 스테이시 리어던 스님은 "불교란 신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에 끌렸다"며 개종 이유를 말했다.

아담스 스님은 "불교가 탄생한 2500년 전 인도, 정토진종이 열린 가마쿠라 시대의 일본, 그리고 21세기의 실리콘밸리. 시대가 바뀌어도 불교는 사람을 위해 계속 있었다"며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진리"라고 강조했다.

日, 불보살 따르는 '권속' 특별전 '인기'

교토 류코쿠대학 박물관서
일본 중요문화재 한자리에


제작 당시의 문화상이 담긴 '보현십나찰녀도'. 사진출처=미술관 내비

불교미술에서 불보살을 따르는 신중인 '권속'에 주목하는 특별전이 일본에서 열려 화제다. 지난 9월 21일 일본 '교토신문(京都新聞)' '미술관내비(美術展ナビ)' 등은 교토 류코쿠대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권속,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眷属―ほとけにしたがう仲間たち―)'에 대해 보도했다.

'권속'은 불교에서 신앙의 중심 불보살을 따라 불법을 수호하고, 수행자를 돕는 신중들이다. 약사여래불의 권속 12야차 신장, 준제보살의 난타와 발난타 용오아형제 등이 대표적이다.

교토 시모교구의 정토진종 혼간지파 종립 류코쿠대의 류코쿠박물관(龍谷大学ミュージアム)은 특별전 '권속: 부처님을 따르는 동료들' 전시가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추계특별전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에는 일본 불교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나라국립박물관(奈良国立博物館) 소장 이십팔부중상(二十八部衆像), 고야산 콘고부지(金剛峰寺)가 소장한 국보 부동명왕팔대동자상(不動明王三童子像) 등 일본 국보 혹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시는 총 4장으로 △권속이란 무엇인가? △불법을 지키는 신들 △부처님을 섬기는 아이들 △끝없는 권속의 세계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전시에 이어 100여 점이 넘는 권속상과 불화들이 대거 전시되며 일본의 전통종교 '신도(神道)'의 권속 등도 소개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전시가 대중의 인기를 끄는 이유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권속들의 모습을 짚었다. 작가와 시대, 지역 등에 따라 변화하는 권속들의 모습이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특히 14세기에 그려진 '보현십나찰녀상(普賢十羅刹女像)'은 〈법화경〉의 보현보살과 나찰녀 10명을 묘사했는데, 나찰녀들이 일본 궁녀 복식을 입어 당시 의복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로 꼽힌다.

류코쿠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는 추계전시를 확대한만큼 명작으로 꼽히는 여러 권속의 그림과 조각을 모았다"며 "불교미술에서 다채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권속을 다시금 부각하는 이번 특별전에서 도상들의 생동감과 다양성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불교 사원, 호스피스 케어센터 운영

지역병원 연계, 협력 체계 구축
부처님 가르침으로 환자 안정


태국 호스피스 · 완화케어센터에 입원한 말기 환자에게 법문을 전하는 스님. 사진출처=더 네이션

지난 9월 21일 태국 영자신문 '더 네이션(The Nation)'은 태국불교 사원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소개했다.

태국 동북부 나콘랏차시마 주의 왓 파 논 사아트 사원의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는 '웰다잉(Well-dying)'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풀어 환자가 평화로운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고 있다. 센터에서는 암 말기 환자, 취약계층, 간병인이 없는 노인, 아픈 스님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다.

왓 파 논 사아트 사원의 주지 프라 생프라흐 판야카모 스님은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병원과 사찰 간 협력의 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중증 말기 환자의 경우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10만 바트(한화 약 4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든다. 호스피스센터에 온다면 환자는 중환자실 비용을 절감하며 심리적 안정까지 가능하다"면서 "병원은 의료인의 번아웃을 예방해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어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는 출가자와 재가자 등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74명이 말기 환자와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센터는 7천만 바트(한화 약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재택의료 환자와 노인을 위한 온라인 법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숙셉 사원, 안거센터 지원 요청

중간보고회서 현황공유, 지원독려
운동·명상 등 양질 수행환경 제공


숙셉 사원의 여성 출가자들이 안거 센터 건립을 돕고있다. 사진출처=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가 후원하는 숙셉 비구니 사원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참배로 완공 소식과 안거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9월 16일 해외불교 전문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숙셉 비구니 사원 근황을 보도했다.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캉그라 지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는 티베트 여성협회와 티베트 망명정부 종교문화부의 후원으로 설립됐다.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티베트 난민 출신 비구니들과 티베트 불교 문화권의 여성 출가자들에게 교육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중 하나인 닝마파에 속한 숙셉 비구니 사원은 원래 티베트의 수도 라싸의 교외에 소재하고 있다. 1959년 중국의 탄압으로 파괴된 후, 인도로 망명 온 스님들이 힘을 모아 2010년 12월에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재개원했다. 다람살라 숙셉 비구니 사원에는 현재 약 100명의 여성 출가자가 거주하며 이들은 9년간 불교철학, 토론, 티베트어, 영어 등을 교육받는다.

TNP는 "무문관 수행을 위한 전문 안거 센터는 불교 수행에 필수 요소이지만 현 사원에는 안거를 위한 공간이 없다"며 "현재 숙셉 사원의 여성 출가자들이 무문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람살라에서 멀리 떨어진 츠푸 동굴이나 네팔로 이동해야한다. 출가자가 사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시공덕을 쌓아달라"고 기부를 독려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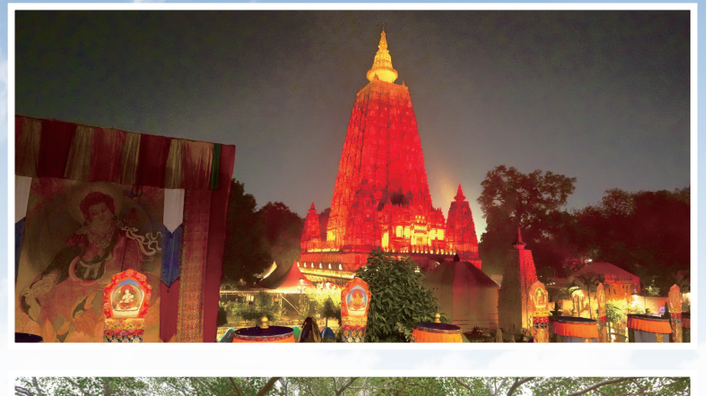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 동참금 : 299만원

기타 인도성지 출발일정입니다.
▶ 10월 20일 출발 ~ 10월 2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11월 17일 출발 ~ 11월 26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 12월 05일 출발 ~ 12월 1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중남미 6개국 여행 20일 2025년 3월 8일 ~ 3월 27일
▶ 인천 – 아틀란타 – 리마(페루) – 쿠스코 – 마추픽추 – 쿠스코 – 라파즈(볼리비아) – 우유니 – 라파즈 – 리마 – 리오(브라질) – 이과수(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 파타고니아 엘칼라파테 – 보고타(경유) – 멕시코 시티 – 칸쿤(멕시코) – LA(경유) – 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